

작품·감독·각본·국제영화·미술·편집상 '6개 부문'

기생충, 한국 첫 아카데미 후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사를 뒤흔들며 놓았다. '기생충'이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가운데 앞서 이날 오전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감독상 등을 수상한 봉 감독이 환하게 웃고 있다.

봉준호 감독 한국영화 새 역사 썼다

아카데미 도전 58년만에 주요부문 후보
“아시아영화 지형도 바꾼 획기적인 사건”
2월10일 어떤 결과 나올지 전세계 주목
‘부재의 기억’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 패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영화사 100년을 맞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함께 역사의 페이지를 새롭게 열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되짚는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도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가 13일 밤 10시18분(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24개 부문 후보를 발표한 가운데 '기생충'이 주요 부문인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미술상, 편집상 후보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아카데미상 도전에 나선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린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기생충'에 대한 후보 지명은 사실 일찌감치 예견돼 왔지만 6개 부문 진출은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후보 지명은 한국영화 뿐 아니라 아시아영화의 지형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한국영화가 소수 인종·전문가 중심의 아트영화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계층과 세대가 소구하는 글로벌 대중미디어로 진입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분석했다.

실제로 '기생충'은 지난해 10월11일 북미 개봉 이후 현지 평판과 언론의 호평 세례를 받아왔다.

전미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을 시작으로 LA비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에 이어 6일에는 한국영화 최초로 제77회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북미방송영화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초이스어워드에서 감독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노아 바우바흐, 마틴 스코세이지까지 내가 사랑하는 감독들과 후보에 함께 올라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기생충'이 2월10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몇 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차지할지 여부로 쏠린다. 최근 아카데미상이 시도하는 변화가 '기생충'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주류인 와스프(영글로 색슨계 백인)와 유대인 중심에서 차츰 탈피해 다인종·다문화의 이슈로 시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비영여권 영화인 '로마'에 감독상을, 2017년 출연진 모두 흑인으로 이뤄진 '문라이트'에 작품상을 수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U-23 축구대표팀의 조규성은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진행 중인 2020 AFC U-23 챔피언십 12일 이란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환상적인 골과 건조한 세리머니로 모두를 열광시켰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김학범의 남자’ 조규성
황의조의 길이 보인다

이란전 원더골…공중볼·지구력·체력 강점
작년 K2서 14골…대학때 공격수로 전환



대개의 골 세리머니는 격정적이다. 축구의 승부가 골로 갈리는데, 그 골이 터졌으니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끓어오르는 감정을 온 몸으로 표출하는 건 자연스럽다. 특히 감정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젊은 선수일수록 더욱 요란할 법하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2차전 이란전(12일)에서 결승골(한국 2-1 승)을 넣은 조규성(22·안양)은 조금 달랐다. 아크 부근에서 터뜨린 그의 원발 터닝슛은 상대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고 정확했다. 그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골을 확인한 뒤 제자리에 서서 그냥 양 팔을 벌린 채 가볍게 흔든 게 전부였다. 국제대회에서 골 사냥에 성공한 공격수의 몸짓치고는 너무나 밋밋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한 세리머니가 압권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선 당당함이 풍겨 나왔고, 그게 오히려 화제가 됐다.

이날 조규성의 선발은 김학범 감독의 승부수였다. 1차전 중국전에서 1-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부진했다고 판단한 김 감독은 이란전에선 무려 7명을 교체했다. 그 중 한명이 스트라이커 조규성이다. 그는 1차전 선발 오세훈(상주)과는 스타일이 다르다. 193cm의 오세훈이 전형적인 타깃형이라면, 185cm의 조규성은 활동 범위가 넓은 공격수다. 또 전방 압박과 배후 침투능력이 뛰어나다. 조규성은 이날 벤치의 기대대로 주도권을 확실하게 거머쥐는 환상적인 골로 한국의 조기 8강행에 힘을 보탰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CJ CHEILJEDANG

(09~16년 식약처 생산실적 중 자사 전립소 브랜드 생산실적 기준)

대한민국 1등!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1월 특별 이벤트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4개월분 구매 시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1개월분
추가 증정



원산지: 중국 (전립소: 쏘팔메토 열매추출물(미국산), 전조호(캐나다산) | 부원료: 포도씨앗유(스페인산))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로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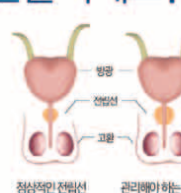
소변고민, 떨어진 자신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를
추천합니다

잠을 자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는가?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십니까?
배뇨 후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소변출구가 자주 끊어지고 약하십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우십니까?

《제품정보와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입니다》

소변문제, 전립선 때문인걸 아세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병통 크기의 생식기관으로서 중년이 되면 남성호르몬의 변화로 사마만큼 크기가 커져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 가지 소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없애는 전립선 고민! 더 이상 슬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루 빨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4개월분 구매 시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1개월분 추가 증정

원산지: 중국 (전립소: 쏘팔메토 열매추출물(미국산), 전조호(캐나다산) | 부원료: 포도씨앗유(스페인산))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가 선택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체크하세요!

미국 FDA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원료 사용!

소변을 시원하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700명 대상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아노/소변속도 개선 확인!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 추가!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타민 B1, B2, B6, B12 함유로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 충전까지
■ 중년 남성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아연 함유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무로수담당주문

080-722-9988

고객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CJ제일제당 (주) 고객지원팀 (주) CJ제일제당 (주) 고객지원팀 (주) CJ제일제당 (주) 고객지원팀